



‘아동 인권 보호’의 사각지대 여전

2022년 5월 5일은 어린이날 100주년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속담이 있는데 100년이란 시간 속 아동 인권은 얼마나 나아졌을까? 과거에 비해 물질적으로 풍요러워졌지만 여전히 아동인권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지만 푸른 5월에 들려오는 아동학대 소식은 어느 때 보다 비극적이다.

푸른 5월, 멍드는 아동

2016년 5월 2일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표한 아동권리헌장에는 ‘모든 아동은 존엄성을 가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아야 하다’고 명시되어있다. 하지만 오늘날 아동 인권 현실은 밝지 않다. 어린이날 100주년이 무색하게 5월 6일 대전지방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991건으로 2018년(434건)보다 128.3%가 늘었고, 2019년 509건, 2020년 73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아동학대 심각성이 최대 이슈화 됐던 ‘정인이 사건’ 이후에도 아동학대 뉴스는 끊이지 않고 있다. 20개월에 불과한 자녀를 성폭행·살해하거나 애인에게 자녀를 폭행하여 숨지도록 종용하며,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을 학대해 사망하게 한 사건 모두 우리 지역에서 발생했다. 아동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학대가 우리 가까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아동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바라보다

어린이날은 1923년 소파방정환 선생을 포함한 ‘색동회’가 주축이 되어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하며 시작됐다. 방정환 선생은 기념행사에서 ‘어른들에게’와 ‘어린이들에게’로 나누어 쓴 ‘어린이날 선언문’을 배포했는데, 어린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자는 당연한 일을 선언하듯 선

포했으니 당시 어린이의 인권이 어땠는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어린이선언’은 1924년 9월 26일 제네바 아동권리선언보다 먼저 만들어졌지만 그 내용은 사뭇 다르다. ‘어린이날 선언문’에서 어른들에게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고 부드럽게 대하라’ 등 독립된 인격체로서 어린이를 존중하라고 부탁하고 있다. 그리고 어린이에게는 ‘돋는 해와 지는 해를 반드시 보고, 어린이들끼리도 서로 존대합시다’ 등 바른생활을 권하는 내용으로 ‘어린이 인권존중’을 개인의 판단과 실천으로 여겼다. 이에 반해 제네바 아동권리 선언은 아동의 발달보장, 요보호, 아동의 보호, 아동구제의 우선성, 착취로부터의 보호, 아동육성의 목표달성을 국가의 책임으로 보고있다. 이런 선언을 토대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이 생겨났고 이제는 아동을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보고 있다.

어린이날 하루만큼은 진정 존중 받았나

어린이날이 선포된 때는 일제강점기다. 일제강점기 36년은 우리 민족에게 인권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생명권조차 무시되는 질곡의 시기였다. 하물며 어린이를 일제강점기와 광복, 1960년대를 지나며 어린이날은, 어린이에게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 등을 제공하며 하루 기념을 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경제적으로 나라 전체가 어려웠고 끼니를 해결하는 것만도 벅찬 생활을 하던 시기였으니 어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어린이날 하루만큼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이 행복했을 것이다. 다만 부모가 있고, 어느 정도 먹고사는 문제는 해결되는 가정의 어린이에 한해서였다. 하지만 어린이를 독립된 인격을 갖춘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그렇다면 오늘날 대한민국 어린이의 삶과 인권은 나아졌을까?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한 정책들

아동복지법 외에 아동의 일상생활에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령이 제정됐다.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제도는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도입되었고 그해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제정됐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인 그린푸드존(Green Food Zone)은 2008년 3월 21일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공포하고, 1년 뒤인 2009년 3월 22일부터 이를 시행했다. 지방, 당, 나트륨이 많이 들어간 식품은 어린이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특별법은 이런 식품을 학교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법령이다.

아동이 경제생활의 주체로서 소비자 계층으로 자리 잡으면서 생활용품, 화학물질 등으로 인한 어린이 생활안전 사고가 급증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 안전인증을 하도록 했고, 화학물질 등이 삼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보호포장을 하도록 의무화 됐다. 어린이보호포장은 2002년 의약품의 어린이보호 안전용기 사용 의무화부터 시행됐다.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안전 확인, 안전인증, 어린이보호포장 등 적용대상이 확대 강화됐다. 어린이보호포장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아니하지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 및 용기를 말한다.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

최근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점차 무거워지고는 있다. 그러나 언론에서 이슈가 돼 여론이 들끓어 야만 그렇다고 볼 수 있다. 아동학대 범죄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다뤄야한다. 하지만 범죄가 신고 되어도 적합한 법 심판을 받지 않거나, 범죄 사실이 수면위로 들어나지 않은 경우도 많다.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돌아봐야 한다.

어린이와 여성, 노인, 장애인이 행복한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한다. ‘가정의 달’이라고 정한 5월에, 일 년에 단 하루 ‘어린이날’ 말고, 364일 우리나라의 어린이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낄 정도는 아니더라도 법적인 최소한의 보호는 받는 인격체라고 느끼게 해주는 사회인지 심각하게 점검해봐야 할 때가 왔다.

조강숙 인권기자

 이 신문은 환경보호를 위해 재생원료를 배합하여 만든 친환경 용지와 콩기름 잉크를 사용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어린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지다

전쟁 포화 속, 아동인권은...

올해 우리나라 어린이날이 100번째 생일을 맞는다. 백년째 이어져 온 어린이날 의미는 다양하지만 가장 큰 가치는 ‘어린이를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존엄한 존재라고 여기는 일’ 것이다. 하지만 최근 뉴스를 장식하는 아동학대는 소식은 단순 이슈를 넘어, 잔혹 범죄로 인식된다. 어린이는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어른과 동등한 독립된 인격체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아동이지만 세계 곳곳에서 기본적인 존엄을 잃어버리는 아동이 있다.



전쟁 속 표적이 되는 어린이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두 달 지났다. 끔찍한 전쟁의 포화 속에서 분쟁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은 채 수많은 민간인이 고통 받고 있다. 지난 3월 말 우크라이나의 레스니코프 국방부 장관은 러시아 침공 이후 어린이 150명이 숨지고 학교 400곳과 병원 110곳 이상이 파괴됐다고 밝혔다. 전쟁으로 인해 어린이들의 삶이 무참히 무너진 것이다.

서로를 증오하는 두 집단이 서로의 생명을 빼앗아 무력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전쟁 상황에서 어린이들은 가장 쉬운 표적이 된다.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목숨을 앗아갈 경우 상대방에 커다란 증오심을 유발해 심리적으로 상대를 무력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전 전쟁 기록을 보면 저격수들이 아이들을 겨냥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유엔아동기금은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된 이후, 우크라이나 어린이 난민만 150만 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전체 난민의 절반 수준이며, 초당 1명꼴이라고 한다. 외부 변화에 취약한 아이들은 기존에 보호받았던 집과 학교, 병원이 붕괴하여 성장에 필요한 필수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가 높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삶은 더 취약해지는 것이다. 게다가 건강도 문제가 된다. 일단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깨끗한 물과 적절한 영양, 안전한 집과 보호자의 애정이 필요하지만 전쟁은 아이들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지 않는다.

삶의 터전이 파괴되는 과정을 바라보는 아이들은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전쟁으로 교육받을 권리와 성장할 권리를 박탈당한 아이들은 더 큰 세상과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기회를 잃는다.

씻을 수 없는 상처, 전쟁 트라우마

전쟁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최근 외신을 살펴보면 피란길 어린이들의 정신 건강을 살핀 보도가 많이 나온다. 이미 수천 명의 어린이가 심각

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한다. 아버지가 징집돼 전쟁터로 나가기 때문에 아이들은 일단 부모를 잃거나 멀어진다. 또 주변 사람들을 죽음을 지켜봐야할 경우 심리적 충격이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런 비극적 상황을 유년 시절에 겪었다면 향후 성장에도 큰 차질을 빚게 되는 자명한 사실이다. 지금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많은 것들이 전쟁터에 산재해 있다. 사람들이 죽고, 터전이 불타 없어지는 끔찍한 상황을 아이들 역시 함께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전쟁을 겪은 세대가 존재하고, 그들에게 커다란 트라우마를 남긴 것을 잘 알고 있다. 현재 명분 없는 전쟁에 희망과 내일을 잃어버리고 피난길에 오른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이 있다. 그들이 겪은 전쟁은 어떤 얼굴로 기억될까? 그래서 평화는 단순히 구호가 아니라 인간을 존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전쟁을 멈춰야 한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 수많은 어린이가 살고 있기 때문이다.

희망을 짓밟는 전쟁의 소용돌이

2017년에 100분 분량의 세계 2차 대전(1939년~1945년)의 전쟁을 기록한 영화가 있다. ‘랜드 오브 마인(Under sandet, Land of Mine)’은 언론과 평단의 호평을 한 몸에 받았고, 관객들 반응도 뜨거웠다. 지금껏 다뤄진 전쟁 소재 중 가장 강렬한 실화를 다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전쟁에 참전했던 어린 소년병들의 공포에 질린 얼굴은 잊을 수 없는 여운과 몰입감을 선사한 장면들로 꼽힌다.

영화 ‘랜드 오브 마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덴마크군이 포로로 잡은 독일 소년병들에게 서해안 해변에 매설된 지뢰의 해체작업을 맡겼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제2차 세계대전 전쟁 막바지에 조직된 시민군은 대부분 참전 경험이 전혀 없는 민병대였고, 가장 어린 군인은 불과 13세였다. 1945년 종전 후 서해안에 매설된 200만 개 이상의 지뢰를 해체하는 데 투입된 소년병은 2,600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지금까지 수많은 영화가 제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만들어져 왔지만 오늘날까지도 덴마크 해

변의 지뢰 해체작업에 대한 이야기는 덴마크 현대사에서 터부시될 만큼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이 덴마크를 점령했던 5년의 세월보다도 5개월 동안의 지뢰 해체작업에서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을 만큼 유럽인들에게 이 사건은 가슴속에 잊힌 아픈 역사로 남아있기도 하다. 영화 속의 소년병들은 이 지뢰들을 3개월 동안 해체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도 없이 하루하루를 생사의 갈림길을 넘나든다. 나치의 잔해를 독일의 소년병들이 처리하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뒤바뀐 아이러니한 사실과 군사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10대 소년병들의 공포에 질린 얼굴을 통해 영화는 ‘인간’과 ‘전쟁’의 의미에 관한 또 다른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

전 세계 어린이 6명 중 1명은 전쟁 피해 아동

2018년 국제구호 세이브더칠드런 소식지에 따르면 전 세계 아동 6명 중 1명은 어른들의 전쟁에 고통 받는다고 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20년간 분쟁 지역 아동의 상황을 분석해 ‘아동을 향한 전쟁’의 내용을 보고서로 그해 발간했다. 보고서는 분쟁으로 목숨을 잃고, 아동을 향한 성폭력, 징집 아동에 대한 상황을 전하는데 특히 아동을 자살폭탄 테러에 이용하거나 학교와 병원을 겨냥한 직접적 공격, 폭탄 사용은 분쟁 지역에 사는 아동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유독성 스트레스’ 영향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유독성 스트레스’는 아이들이 충격적 사건을 겪고 극도의 폭력과 결핍에 일상적으로 시달릴 때 나타내는 심리적 상태로 아이들이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 유형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것으로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평생 심리적 상흔을 남긴다.

전쟁의 피해는 고스란히 어린이들에게 고통으로 전가된다. 우리 모두는 어린이였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계속 어린이와 함께할 것이다. 어린이의 존엄과 인권을 보장하고 어른들의 폭력에 어린이가 희생되지 않도록 세계는 전쟁 근절을 위해 함께 행동해야 한다.

이희내 인권기자



인권에 관심있는 시민의 목소리를 찾습니다!

자유로운 형식의 글로 일상생활 중 경험한 인권이야기, 독자투고에 선정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됩니다
인권도서 서평 등 인권 관련된 글이라면 가능합니다.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인권도시, 대전!**

보내주실 곳 djhr1210@naver.com 분량 1,000자 이내



“전쟁을 지금 당장 멈춰주세요”



<p>리시아 인권 존중 Please ㄷ ㄷ - Irene -</p>	<p>Bella Stop War CHEER UP! 함내!</p>	<p>인권을 X 침해하지 마시오... Emily</p>	<p>우크라이나의 인권을 진압하지마세요. stop 그만 Ruby</p>
<p>힘내라 우크라이나! Ruby</p>	<p>생명 존중 합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Emily</p>	<p>러시아! 전쟁 멈춰! stop War! - Irene -</p>	<p>너와 우리의 인권과, 모두의 인권과 우크라이나 의 전쟁을 도와주 라고 음식과 포켓 북 보내!! Ruby</p>
<p>힘내! 우크라이나 Ivy</p>	<p>인권 존중 러시아 → 우크라이나 Bella</p>	<p>우크라이나 화이팅! James7+</p>	<p>STOP WAR 전쟁 멈춰 chris</p>
<p>Stop War mandy</p>	<p>“세계 많은 어린이가 전쟁의 위협에 고통 받고 있어요. 인권의 가치가 최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행동해주세요”</p> <p>레인보우희망봉사회 어린이 봉사단인 '그린투모로우'는 지구 기후변화와 위기를 막기 위해 플로깅 챌린지, 탄소중립 분리배출, 생태계 보호를 위한 하천 환경 정화를 매주 1회 하는 지구 환경지킴이입니다. 2022년 3월부터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시민인권지원사업 인권학습소모임 지원으로 다양한 인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p>		

독자 투고 / 우크라이나 친구들에게

TO. 우크라이나 친구들에게

안녕, 나는 대한민국에 사는 12살 장하민이야.
얼마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리고 러시아군이 어린이들이 많은 유치원이나 학교에 폭격을 하거나,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먼저 대피시키느라 가족과 헤어져야 할 일도 많다고 들었어.
나는 부모님이 집에 늦게오시기만 해도 걱정이 되는데, 전쟁이 나서 부모님과 떨어져서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면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많이 무서울 것 같아.
전쟁은 어떤 이유로도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해. 죄없는 사람들이 힘들어하잖아.
상대방을 배려하고 자신의 이익만 쫓지 않기만 해도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까야 얼마 전에 책에서 20년 전에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던 일이 있다는 걸 알았어. '요즘에는 평화를 추구하는 시대인데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다니! 말도 안돼!

그래도 20년 전인데 뭐, 지금 전쟁이 낫진 아니잖아!' 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내가 고래 자란 지금 전쟁이 일어나다니! 처음엔 믿기지가 않았어.
그리고 전쟁이 일어난 이유도 이해가 안됐어.
하지만 여러 방송이나 사람들은 통해 전쟁상황에 대해 조금씩 알아갔어. 내가 직접 전쟁을 겪어보지는 못했지만 우리 할아버지가 8살 되던 때 겪었던 우리나라의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들었어 그래서 얼마나 끔찍한 건지는 알아. 평온한 전쟁이 끝나서 가족과 함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랄게. 건강해!

- 하민이가 -

장하민 대전신흥초등학교 5학년



'시'와 '인권'이 마주할 때

오월의 꿈

임선호 인권기자

오월의 햇살은 자애롭다

언 땅에서 싹을 틔워 푸른
아카시아 향기
온 하늘 부드러운 미소 보내듯

오월은 어린이 세상
작은 눈동자에 비친 맑고 순수한 꿈

어디에 자라든
모든이의 사랑으로
그 꿈들 자라
평화롭고 차별 없는 세상
오라 자애로운 오월의 햇살처럼

어린 꿈 나의 꿈

글쓴이의 말

싱그런 신록의 틈으로 맑은 오월의 햇살이 내립니다. 아무런 차별 없고 조건 없이 온 생명을 키워내고, 오월의 그늘을 향하여 그 따뜻한 미소를 보냅니다. 그것은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송고한 아버지의 사랑과 닮아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사랑받아야 하는 고귀한 존재입니다. 어린이는 더욱 그렇습니다.

어린이들이 모두 고통받지 않고 차별 없는 세상에서 살기를 희망합니다.

밝고 빛나는 오월! 동심에 깃든 순수의 꿈에 나의 꿈을 담아봅니다.

어린이날 선포 100주년 기념

어린이를 대하는 나의 모습은 어떤가요?

1923년 소파 방정환 선생이 만들고 선포했던
어린이선언 중 어른에게 드리는 글을
요즘 표현과 상황에 맞춰 정돈했습니다.
여러분은 몇 개나 해당되나요?

체크해 보세요

* 괄호 안은 어린이선언 원문

- 나는 아이를 동등한 생명체로 생각해요.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치보아주세요)
- 나는 아이와 자주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치보아주세요)
- 나는 아이를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해요.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부드럽게 하여주세요)
- 나는 아이가 깨끗하게 씻는 습관을 갖도록 도와요.
(이발이나 목욕, 의복 같은 것을 때맞춰 하도록 하여주세요)
- 나는 아이가 충분히 자고 운동하도록 살피요.
(잡자는 것과 운동하는 것을 충분하게 하여주세요)
- 나는 아이를 혼낼 때, 부드럽게 설명하고 타일려요.
(어린이를 책망하실 때에는 쉽게 상만 내지 마시고 자세히 타일려주세요)
- 나는 아이의 놀권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린이들이 서로 모여 즐겁게 놀 만한 놀이터나 기관을 지어주세요)
- 나는 미래 희망이 어린이들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배우주의 뇌신경 말초는 늙은이에게 있지 아니하고 젊은이에게도 있지 아니 하고 오직 어린이 그들에게만 있는 것을 늘 생각하여주세요)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Daejeon Human Rights Center

동화속 인권

노예 소년을 사랑한 공주

카시오페이라는 공주는 어느 날, 시장에서 금 돈 열 개를 주고 아프리카의 노예를 샀다. 공주는 노예 소년에게 '세네갈'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항상 무릎을 꿇고 그녀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게 했다.

너는 꿈꿀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어.
넌 내 노예야. 난 너를 벌 줄 수도 있고,
다시 팔 수도 있고 또 죽일 수도 있어.

아주 이기적이고 변덕스럽고 걸핏하면 화를 내는 공주 곁에서 노예 소년은 묵묵히 시종을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카시오페이아와 세네갈은 자신의 앞에 놓인 신분이라는 장벽을 무너뜨리고 모두가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할 인간 관계에서 불평등을 강요하는 인종차별, 인종주의적 편견으로 인한 노예 제도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비인간적인 사회적 모순임을 깨닫게 되는데...

좋은 생물적, 신체적 특성에 기초한 사회적으로 규정된 집단을 말한다. 근대 유럽인들은 인종에 따른 생물학적 차이가 인간의 능력과 우월을 결정한다는 믿음에 기초해 타인에 대한 차별과 지배를 합리화 한다. 그로 인해 많은 유럽 국가들이 노예제도라는 인종차별을 수용하고, 문명화를 빌미로 식민지화하는 인종차별을 정당화 했다. 수많은 학살과 살육을 자행한 비인간적인 나치의 홀로코스트, 미국의 노예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 등이 그러한 예이다.

△ 미국 한방울 정책(ODR, one-drop rule) : 미국 남부에서 1950년대 중반까지 한방울 정책이 시행되었다. 흑인의 피가 약간이라도 섞여 있는 사람은 무조건 흑인으로 간주했다.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 : 아파르트헤이트는 남아공의 인종 분리와 차별정책으로, 인종별로 등급을 나눈 뒤 그들 사이의 거주지 분리, 통혼 금지, 출입구역 분리 등의 차별로 평화시위자 69명이 희생된 사건이다.

△ 독일 나치 홀로코스트 :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은 게르만 민족이 세상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고 그 외의 민족들은 인종 쓰레기, 저질 족속이라고 표현하며 유대인, 장애인, 집시 등을 멸시하고 핍박하였다. 우리는 홀로코스트를 통해 인종적 우월 또는 증오에 근거한 차별이 심각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 미국KKK : KKK는 백인우월주의 등을 주장하고 흑인 노예해방을 지지하는 백인들과 흑인들을 폭력으로 협박하였다.

△ LA흑인 폭동 : 사건의 발단은 흑인 로드니 킹을 백인 경찰들이 집단 구타한 사건으로 도화선이 되었지만, 한인에게 깊은 아픔으로 남은 LA흑인 폭동에 대한 대처의 이면에는 철저하게 인종차별적이었으며, 뿌리 깊은 인종주의가 자리잡고 있다

20년 5월 벌어진 조지 플로이드 인종차별 사건은 경찰에 의해 흑인이 사망한 사건이다. 그로 인해 Black Lives Matter(흑인의 생명은 중요하다)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렇다면 21세기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 전 한국의 정서는 단일민족에 대한 강한 애착과 '다름'에 대한 배타성에 따른 인종주의의 모습들을 드러냈다. 전통적, 사회적, 인종적으로 편견이 심하고 외국인들과 이주민들이 체감하는 사회적 차별과 배제의 수준이 높고, 대외의존도가 높았다. 이미 2007년 8월 국내에 체류하는 다문화 형태의 외국인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지만 한국사회에서도 인종주의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다.

한국은 1978년 UN의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1980년부터 협약에 가입하였다. 매년 3월 21일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이다. 더는 우리 사회의 인종차별 문제를 방지해서는 안 될 시점에 이르렀고, 인간 존엄과 평등의 원칙을 되새기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감수성을 키우기 노력하려 애써야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게 느껴진다.

'노예 소년을 사랑한 공주' 인권그림 동화를 통해 노예제도와 신분이 얼마나 비상식적인지를 인식하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맥락인 '인권'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인종주의에 대한 포괄적인 고찰과 총체적인 이해를 통해 준엄한 인권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 저자: 폴 티에스

한숙희 인권기자

인권보호 울타리로 성장하길 소망한다

보고픈 손녀·손주에게 전하는 편지

주말에 할아버지는 베트남 아이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있다. 엄마 따라 한국에 와 초등학교에 다닌 지 1년이 된 아이다. 아직 한글을 깨우치지 못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대견하고 안쓰럽기도 하다.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아시아 녀와, 동생 테오가 생각난다.

너희들은 지금 프랑스에서 살고 있으니 불어로 말하는 게 당연하다. 만약 한국에서 살았더라면 불어 대신 한국어를 배우느라 힘들었을 게다. 그래도 지금은 둘 다 불어를 잘하고 래권도도 재미있게 배우면서 잘 지내고 있더니 흐뭇하구나.

너희들이 태어난 프랑스는 인권차원에서 중요한 역사를 가진 나라이다. 200여 년 전인 1789년에 절대 왕권에 저항한 시민 혁명을 일으켰다. 프랑스 혁명의 인권선언을 통해 시민들은 자유, 평등, 박애 정신을 쟁취했다. 이 인권선언에는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자유롭다는 것과 주권재민, 법 앞의 평등 등 루소적인 사상도 담고 있다. 이 혁명과 선언을 통해 인권이란 용어도 처음 등장하게 되었다. 이런 프랑스에서 태어난 너희들은 당연히 인권 감수성이 풍부해지고, 커서는 적극적인 인권 옹호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소설가인 프란츠 카프카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당시 독일 속국인 체코 프라하에 사는 유대인으로서 독일어를 사용해야 했다. 그의 부모는 카프카에게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라고 주문했다. 어린 카프카는 그의 정체성에 대해 무척 혼란을 가졌다고 한다. 이와 같은 정체성 혼란문제를 <변신> 등 여러 소설에서 다루었다. <속초에서의 겨울>이란 소설을 쓴 엘리자 수아 뒤사팡이라는 프랑스 작가와 얘기한 적이 생각한다. 그는 한국인인 엄마와 프랑스인인 아빠 사이에서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해 고민했던 흔적을 이 소설에서 잘 풀어냈다. 너희들 집에 책을 보냈으니, 나중에 읽어보렴.

너희들이 쫓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유권과 평등권에서 출발한 인권도 사회권과 연대권 등으로 발전하고 있다. 사회보장권, 노동권, 건강권, 주거권, 연대권, 환경권 등의 권리가 그것이다. 자본주의 사회가 배세우는 경쟁과 효율성의 이면에 짐을 싣고 거리로 버무리거나 스스로 최소한의 생존조건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인권용어가 처음 만들어진 나라에서 태어난 너와 테오가 항상 인권을 존중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울타리로 성장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



▲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최봉호 기자의 딸 가족

최봉호 인권기자

인권 칼럼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

기사를 쓰기가 힘들었다. 기사를 쓰기 위해 가슴 먹먹한 사건들을 다시 마주해야 했고, 가슴 아픈 이름을 불러봐야 했으며 지키기 힘든 약속을 다시 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아이의 생명의 소중함을 조금이라도 알릴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아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고자 한다.

2020년 10월13일 생후 16개월의 아이가 병원에 실려와 몇 시간 버티지 못하고 하늘의 별이 되었다. 당시 아이는 온몸이 멍투성이였고, 곳곳에서 골절이 발견되었다. 그 작은 몸에서 내장이 터지고 채장은 끊어져 있었다. 아이의 체념한 듯한 표정에서 무섭고, 아팠던 당시의 상황을 볼 수 있었다.

아이를 입양한 목적은 친딸에게 여동생을 만들어주고 싶은 부모의 지독한 이기심이었다. 가해자에게 입양한 아이는 사람이 아니었다.

한 아이의 생명에 대한 책임과 반성으로 2021년 1월에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가 이어졌으나 아직도 많은 아동들이 안타까운 죽음에 이르고 있다.

지속적인 학대를 받다 여행 가방 속에 갇혀 숨진 9살 아이, 장애아동을 포함해 원생 10명을 상습 학대한 인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사건 등 언론을 통해 상



상하기 힘든 어른들의 만행은 꽃보다 아름다운 아이들의 삶을 잔혹동화로 물들이고 있다.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에 따르면 2018년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학대로 신고·접수된 사례는 총 2만4,604건으로 만 6세 이하 비율이 전체의 23%였고, 특히 만 1세 미만의 비율도 2%를 차지했다. 학대 가해자의 97% 이상이 부모, 대리양육자, 친인척으로 확인됐다.

"아동학대 행위자는 '훈육을 위한 것'이라고 폭력을 정당화 하지만 우월적 힘과 지위를 이용해 나약한 존

재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것일 뿐"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다. 스페인 교육자 프란시스 페레는 가장 대표적인 권위의 행태가 폭력이라고 말하며 '권위에 의한 어떠한 억압도, 어떠한 명분도 권위에 의한 억압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고 한다. 페레는 아이가 가진 능력을 키워주는 것 이외의 목적이 교육에 개입되어서는 안되며, 사회와 국가의 책무는 아이들을 가르쳐 키우는 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자라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학대로 죽어간 아이들의 목숨값으로 만들어지는 특례법보다 더 시급한 것은 아동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어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권리의 주체로 보는 인권적 시각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20일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함에 따라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아동의 모든 권리를 지킬 의무가 있다.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자의 위치에 있는 대상에 대한 교육 및 처벌 강화가 필요하며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수정, 보완해야 한다.

유복례 인권기자

“장난감 나라에 또 놀러가고 싶어요”

대전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장난감도서관 방문기

둘이 지난 아이가 가장아장 걷기 시작하고 보통의 부모처럼 아이에게 세상을 구경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노키즈존(No Kids Zone)’을 의식했다. 보호자를 혐오하고 비하하는 단어도 속상하지만, 함께 자유롭게 가던 장소를 아이와 동행한다는 이유로 ‘갈 수 없는 공간’으로 경험하는 것이 기분 좋을 수만은 없다.

화려하게 잘 차려진 특별한 장소보다 아이와 부모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을 가기 위해 주말을 앞두고 인터넷을 검색이나 지인에게 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아이와 잘 보낼 수 있는 공간’을 찾았다.

인권기자단 회의에서 올해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이하여 ‘아동 인권’을 주제로 이야기하던 중 ‘어린이장난감도서관’이 화두에 올랐다. 장난감도서관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용 경험이 없는 장소라서 홈페이지를 살폈다. 장난감 대여만 가능한 곳으로 알았는데 영유아놀이체험 장소가 있었다. 아이가 좋아할 것 같아 주말 체험을 예약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걱정이 있는 시기에 정원으로 운영하고 있어 안심했다. 무엇보다 아이를 위해 마련된 공간을 마음껏 즐길 수 있게 해주고 싶었다.

나를 위해 준비된 공간임을 아이들이 먼저 느껴

대전어린이장난감도서관(노은 본점)을 찾아가는 길, 도서관 외부 산책 공간을 보고 4살 아이가 ‘나를 위해 준비된 공간’임을 제일 먼저 알아차리고 뛰어갔다. 알록달록한 색깔의 놀이기구와 둘러앉아 휴식을 취하거나 간단한 도시락을 먹을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있고 만져보고 들어가 볼 수 있는 조형물이 있어 외부 활동을 즐길 수 있다.

기대를 안고 동물들이 반겨주는 문을 지나 입장하였다. 관계자와 예약자명을 확인한 후 바로 놀이 체험을 시작했다. 아이가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이 공간 저 공간을 돌아다



▲ 대전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있는 대전어린이장난감도서관 노은본원



니며 탐색했다. 넓은 공간을 마음껏 뛰어다니며 미끄럼틀, 실로폰, 요술 거울 등 여러 체험기구와 장난감을 만지고 두드리며 즐거워했다. 폭신폭신한 바닥과 안전한 환경 덕분에 아이가 뛰어다녀도 조심하라는 잔소리를 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2층에는 역할 놀이를 즐기는 유아들이 좋아하는 병원 놀이, 소방 놀이 등 주제별 장난감이 마련되어있다. 의사 가운을 입고 아기 인형을 진찰하고, 동물병원에서 동물들을 치료하는 등 여러 가지 상상력을 발휘해 역할 놀이를 하며 90분의 체험 시간을 알차게 즐겼다.

아이를 위해 모두를 위한 공간 마련되길

독일은 제도를 넘어서서 존중과 배려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는 문화가 전반적이다. 그리고 이를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공간’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공간에 아이를 위한 장소가 있다. 예를 들어 어른들을 위한 도서관 한 가운데에 유아들이 놀 수 있는 작은 간이 놀이터를 마련하거나 잠이 든 유아를 눕혀둘 수 있는 아기 침대, 어린이 책상과 의자를 함께 마련한다. 그 공간으로 인해 도서관은 어린이가 있는 보호자도 갈 수 있고, 보호자를 따라오게 된 아이도 머물기 괜찮은 공간이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위한 놀이 체험 공간에 놀이에 집중한 아이들을 지켜보며 입을 수 있는 책이나 읽 수 있는 책상과 의자를 비치하거나, 휴대폰을 충전하거나 보호자 간에 차를 마시며 대화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을 곳곳에 마련할 수 있다면 부모가 좀 더 느긋하게 아이가 즐기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아이를 위한 공간을 좀 더 발전시킨다고 할 때, 보호자와 아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나아가길 기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 어린이장난감도서관 놀이체험 내부(위), 놀이체험중인 유아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해

어린이장난감도서관 방문 이후 아이는 그곳을 ‘장난감 나라’라고 말한다. 밥을 먹을 때, 잠자기 전 불쑥 “언제 또 장난감 나라에 놀러 갈 거냐?”고 묻는다. 그곳이 꽤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다. 과거에 비해 아이를 위한 정책과 지식을 쌓기 위한 공간은 많아졌다. 하지만 막상 어린이의 특성을 이해 받고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한 아이가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가르치는 일은 한 가정의 책임이 아닌 지역사회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걸 강조한 말인데, 100주년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어린이장난감도서관과 같은 공간이 우리 지역 곳곳에 많아졌으면 좋겠다.

글·사진 임은정 인권기자



대전어린이장난감도서관	소재지	문의	영유아놀이체험 정보			
			연령	시간 정원	회차	휴관일
본원(노은점)	유성구 월드컵대로 32 월드컵경기장 동관 1층	042)721-1256	만0세~4세	90분 / 100명	1회차 - 10:00 ~ 11:30	월요일
분소1(판암점)	동구 옥천로187(3층)	042)286-9020	만0세~5세	90분 / 60명	2회차 - 13:00 ~ 15:00	일요일
분소2(둔산점)	서구 둔산북로30(1층)	042)483-9020			3회차 - 15:30 ~ 17:00	일요일
이용요금	영유아	2,000원	보호자	1,000원	영유아 단체 1,500원	-

* 아동 사진은 본인과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게시합니다.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전지역본부를 찾다

1923년 제정된 ‘어린이날’이 올해로 100주년을 맞았다. 100주년을 맞이해 아동 최우선의 원칙 아래 아동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전지역본부’를 찾았다.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더 나은 어린이의 삶을 위해 일하고 있는 최승인 본부장, 김경도 과장, 김승우 과장을 만났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전세계적으로 고아를 돕던 미국기독교아동복지회(Christian Children's Fund)가 한국전쟁당시 고아구호사업을 시작했고 이를 전신으로 1948년 설립됐다. 현재는 국내외 아동복지사업, 모금사업, 연구조사 등 아동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업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1948년부터 74년간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전지역본부 최승인 본부장(앞줄 가운데), 김경도 과장(뒷줄 첫번째), 김승우 과장(뒷줄 두번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전지역본부 소개

아동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동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 소개 부탁드립니다.

최승인 본부장 | 유엔아동권협약을 근거로 아동 스스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이를 제도 및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동공약을 제안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촉구하는 활동을 통해 아동의 정책을 확장하고 정착시키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놀권리와 안전한 환경에서 살 권리,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 등을 중심으로 성착취 근절, 아동학대 예방등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보육, 학습, 의료, 주거빈곤에 대한 해결을 위해 집개보수사업, 공부방지원사업, 문화예술지원사업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아동학대 증가하고 있는데... 아동학대 근절 관련 사업이 있나요?

최승인 본부장 |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한 사업을 살펴보면 저희 기관이 89년도에 한국아동학대 예방협회를 만들어 활동 했고, 그 당시에는 저희 기관 말고는 아동학대에 대해 활동하는 단체들이 없었는데 지금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전국 5개도시에 생기면서 더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동학대의 경우 예방도 중요하지만 학대를 당한 아동이 이후 치료도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의료지원 및 심리상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부터는 ‘아이들의 신호에 응답하라’라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캠페인은 학대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운다는 이유로, 밥투정을 한다는 이유 등으로 끊임없이 폭력을 당하고 있고 이를 다른 가족이나, 이웃, 의사, 경찰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으니 제발 그 신호에 응답해달라는 캠페인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아이가 보내는 응급 신호를 민감하게 반응하고 살펴 더 이상 학대로 생명을 잃는 아이가 없도록 함께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

근무하게 된 동기가 있나요?

김경도 과장 | 초등학교 다닐 때 매주 독후감 썼어요. 그때 한국복지재단에서 발간한 소년소녀가정 생활 수기를 접했는데 그 수기를 보며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때 그 생각이 계기가 되었나봐요.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관련 기관을 찾았고, 처음 활동한 곳이 어린이재단이었어요. 봉사활동이 꽤 재미있었고, 자원봉사자 상을 받을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지원 아동의 근황을 묻는 전화부터, 상황을 면밀히 살피기 위한 가정방문, 행정적인 업무까지 맡으며 자연스럽게 입사 했습니다.

김승우 과장 | 전 대전에서 태어나 대전에서 자란 대전토박이입니다. 저도 어린시절 집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은사님이 저의 형편을 알고 도와주시면서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진로를 고민하며 사회복지학과를 선택했고 취업준비를 하며 동문들은 안정적인 공무원을 택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싶었어요. 그러던 중 친구의 권유로 어린이재단에 채용응시를 하게 되었고 사회복지사로 재단에서 일한지 15년이 되었습니다.

기억에 남거나 보람된 일이 있으셨나요?

김경도 과장 | 가장 기억에 남고 보람된 일은 체조를 하던 여자아이였는데 운동을 하다 부상으로 더 이상 운동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지속적인 상담과 진로 상담 멘토링을 진행하면 함께 봉사활동도 하고 그 이후로 장관상까지 받게 되었어요. 지금도 꾸준히 연락을 해오고 있어요. 그때 정말 큰 보람이 됩니다.

김승우 과장 | 첫 근무지가 청주였는데 그당시 TV프로그램에 ‘사랑의 리퀘스트’라는 프로그램에 소개된 아동이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건강이 좋지 않아 간이식 수술을 했던 친구였어요. 그 친구를 처음 만

났을 때 할머니와 단칸방에 살고 있었고 수술 후 완치가 되지 않아 많은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시기가 잘 맞아 지속적인 지원과 상담을 할 수 있었고 지금은 건강하게 성장해 어엿한 대학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가장 보람된 일은 저희 재단의 도움을 받아 성장한 아이들이 어느새 성인 되어 다시 재단을 후원하러 올 때 정말 뿌듯합니다.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김경도 과장 | 종종 후원자분들 중에 당장 밥을 굶는 아이들만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시각을 바꾸고 의견을 조율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이 조금 힘이 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계속 변화하고 있어 일을 하는데 힘이 되기도 합니다.

김승우 과장 | 아직도 우리나라는 아동 권리에 대한 아동옹호에 대한 정책 개선, 조례 제정, 법개정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해요. 아직도 어린이의 빈곤만 지원해야 한다는 성인들의 시각과 아동을 하나의 인격으로 바라봐주는 성인들의 인식개선이 정말 절실하다고 느껴질 때 그런 부분이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변화되는 모습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더 힘차게 일할 수 있는 거 같습니다.

아동옹호대표기관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방문해 기관에 대한 소개와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들의 공통된 의견은 어린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생각하는 인식의 변화와 함께 빈곤과 질병, 폭력으로부터 고통 받는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었다.

올해로 어린이날이 100주년을 맞이했다. 단순히 그날만 축하하고 넘어가기 보다는 좀 더 아이들의 인권과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날이 되기를 바란다. 더 많은 아이들이 인권이 존중받고 그들의 꿈꾸는 미래가 대전,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기를 소원한다.



2022 대전광역시 인권공모전

6.13.-8.5. / 60일간

접수기간

2022. 6. 13.(월) - 8. 5.(금) / 60일간

공모분야 포스터 / 에세이

공모주제

모두 함께 배려하고 누리는 인권도시 대전

- 대전이 앞으로 인권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어떤 점이 변화되어야 하는지 표현한 작품
- 폭력과 차별, 혐오가 사라진 희망찬 대전을 묘사한 작품
- 일상생활 속에서 인권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작품

응모자격

전국 단위/인권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개인 및 단체(3인 이내)

* 단체의 경우 시상금은 개인과 동일하며, 단체명으로 상장 수여

접수방법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홈페이지 www.djhr.or.kr

결과발표 2022. 9. 30.(금) 예정

시상내용 대전광역시장상 등 25점 수여

(단위 : 천 원)

부 분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부문별 상 금
		각 1점	각 2점	각 2점	
인 권 포스터	초등부-저(5점)	500	300x2	200x2	1,500
	초등부-고(5점)	500	300x2	200x2	1,500
	청소년부(5점)	500	300x2	200x2	1,500
인 권 에세이	청소년부(5점)	500	300x2	200x2	1,500
	일반부(5점)	600	400x2	300x2	2,000
합 계		2,600(5점)	3,200(10점)	2,200(10점)	8,000

* 접수 작품 수 및 작품수준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음